

"20년전 산재사망 동료에 잘가란 말도 못했어요, 이제 화성 시민으로서, 안전사회 일조하고 싶어요"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4.07.03 14:14

화성시청 아리셀 중대재해 시민추모제 열려, 유족-시민 발언 이어져
아리셀 중대재해 대책위-유족들 '추모제 휘방' 화성시청에 사과 요구



지난 2일 화성시청 정문 앞에서는 두 번째 시민추모제가 진행됐다.

아리셀 중대재해 대책위와 산재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첫 번째 '시민추모제'를 방해하려한 화성시를 대표해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오는 금요일까지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2회 시민추모제에서는 가슴절절한 유족과 화성시민들의 추모와 연대가 이어졌다.

대책위는 지난 1일, 유가족 지원을 위해 매칭된 공무원들이 전화를 걸어 "금일 추모제가 취소됐다"는 거짓말을 하고 유가족의 추모제 참가를 가로막았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이에 항의하는 대책위 관계자를 향해 고소, 고발을 언급하는 등 대책위와 유가족을 겁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화성시와 화성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오는 5일 오후 3시까지 정명근 화성시장이 직접 대책위와 유가족 앞에서 어제 추모 방해 행위에 대해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지난 2일 화성시청 정문 앞에서는 두 번째 시민추모제가 진행됐다. 비가 오는 가운데 진행된 추모제에서 이순희 산재피해자 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발언했다. 이 공동대표는 “딸이 26살이고 한국에 온 지 3년 됐다. 공부를 하느라고 어릴 때부터 자취를 했고 철이 너무 빨리 들었다”라며 희생자를 기리면서 “한국 와서 일을 하면서 엄마 도와주려고 했는데 처참한 죽임을 당해 분통하고 억울하다”고 전했다. 추모제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진상규명 꼭 하고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함께해달라. 그래야 우리 유가족의 슬픔도 조금씩 사라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행복한 곳으로 갈 것이다. 이 힘든 시기 함께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지난 2일 화성시청 정문 앞에서는 두 번째 시민추모제가 진행됐다.

다음 발언에 나선 화성지역 이주민 지원단체 ‘더 큰 이웃 아시아’의 이용근 상임이사는 “한국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유가족에게 더더욱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4만 명의 이주민들이 화성시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근데 너무 열악한 현장이 너무 많다”고 한 뒤 “비정규직으로서 그 자리에 일을 하고 아무런 노동안전 교육 없이 투입된 게 드러났다. 어떻게 비상구 위치도 모르고 일할 수 있나. 우리 셀터도 노동현장에서 더이상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가족과 함께 하고자 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화성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회사’에 다니고 있는 시민 박덕제 씨는 “참사가 벌어지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히며 발언을 이어갔다. 박덕제 씨는 20년 전 같이 일하던 동료가 산재로 사망한 기억을 꺼내면서 “그때 ‘안녕, 잘가’라는 인사를 못하고 보냈었는데 유가족분들 마음을 온전히 이해 못 하겠지만 같이 함께 좋은 곳으로 보내고 우리가 꿈꾸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차게 일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시민 추모제

화성시청 분향소 앞 | 매일 저녁 7시

위험의 이주화! 외주화 중단!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권리보장! 회복 지원!
세대로 된 재발방지대책 마련!

지난 2일 화성시청 정문 앞에서는 두 번째 시민추모제가 진행됐다.



지난 2일 화성시청 정문 앞에서는 두 번째 시민추모제가 진행됐다.

이날 추모제에는 4시에 유가족들과 함께 설명회를 진행한 대책위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이 함께 했다. 대표 발언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얼마 전 얘기를 나왔고 만으로 3살인데 내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마음이고 인생이 달라진 계기가 있었다. 만약 내 가족이 이런 참사로 생명을 잃는다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위로를 전했다.

그러면서 “2년 전에도 폭발사고가 있었다. 그때도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졌어야 했는데 또 사고가 일어났고 변화가 없어서 답답한 현실이다.”라며 “어제 화성시의 행태를 아실 것이다. 분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족을 생각한다면 어제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 유가족에게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연영석 문화노동자가 추모제 문화무대에 올랐다. 담담한 이야기와 노래로 유가족과 참여한 시민들의 마음을 이어주며 감동과 치유의 시간을 만들어 냈다.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